

‘환자 최우선’의 기업철학을 실천하는 한국MSD

한국MSD(대표 현동욱)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약제회사 머크(Merck & Co.)의 한국법인으로 1994년 설립 이후
우수 전문 의약품과 전문 의학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인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MSD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료제, 남성형 탈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및 영유아 성인 백신 등
41개 전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MSD의 본사 머크의 창립자인 조지 W. 머크 회장은
“의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 아
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110여 년 동안 변하지 않은, ‘환자를 최우선으로(Patients
Come First)’ 하는 기업철학은 MSD의 모든 기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혁신적인
신약과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
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향
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머크는 2007년까지 4년
연속 미국에서 2번째로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Chronicle
of Philanthropy 발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1987년
부터 1993년까지 미 포춘지(Fortune)가 선정한 ‘가장 존
경받는 기업’에 7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02년과
2003년에도 포춘지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제약 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정성 담은 MSD의 장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와 이웃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국
MSD와 머크는 ‘진정성’과 ‘장기적’인 노력을 담은 다양
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MSD는 미래의 한국 의료계를 짊어질 의대생들에게 폭넓은 소양과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격적으로 성숙한 의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청년슈바이처 상'을 2001년부터 후원해오고 있다. 청년슈바이처 상은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의사와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할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며, 시상 부문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업적에 대한 학술상과 박애정신과 봉사정신을 실천한 업적에 대한 봉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MSD는 새로운 개념의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러브 인 액션'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이웃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브 인 액션'은 동호회 차원의 이벤트성 자원봉사 또는 회사차원의 단순한 현금 및 의약품 기부와는 달리, 한국MSD내 사회공헌 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Patients Come First)'라는 기업철학과 '주변 이웃, 지역사회에의 기여'라는 사회공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MSD직원들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지역사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사가 위치한 서울 마포 지역 내 시립 서부

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 분들을 위해 식사 보조 및 배식, 발벗을 헤드리는 봉사활동, 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과 함께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여 필요한 식료품 배달, 청소 등 집안일 보조하기, 노인주간보호센터와 함께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 배달,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입원 중인 중증장애 아들을 위한 간병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도도 높아 일부 직원만이 아닌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직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한국MSD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연중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직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간 20시간에 한해 주중 근무시간을 할애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감염인들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

2008년 발표된 전세계 약 3,000명의 HIV양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설문조사 ATLLS(AIDS Treatment for Life International Survey) 결과에 따르면, AIDS가 최초 발생한 후 2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염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한국MSD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다양한 에이즈 캠페인 및 광고를 진행해 왔다. 또한 감염인들을 위한 치료, 교육, 상담을 위해 에이즈 관련 협회 및 기관에 설립 및 운영 기금을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2002년 EMI와 함께 AIDS의 날 기념음반을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 한국MSD는 앞으로도 감염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한국MSD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다양한 에이즈 캠페인 및 광고를 진행해 왔다. 또한 감염인들을 위한 치료, 교육, 상담을 위해 에이즈 관련 협회 및 기관에 설립 및 운영 기금을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2002년 EMI와 함께 AIDS의 날 기념음반을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에이즈 치료 전문가들을 위한 에이즈 치료 최신 동향 소개 심포지움, 연구 기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한국MSD는 앞으로도 감염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MSD의 본사인 머크 역시 전세계적으로 HIV/AIDS 퇴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머크 재단과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아프리카 보츠와나 정부는 2000년 '아프리카 공동 HIV/AIDS 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보츠와나의 HIV/AIDS 예방, 간호, 치료 및 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머크는 2005년 5월 중국 보건당국과 협력 하에, HIV/AIDS의 예방과 환자 관리 및 치료에 중점을 둔 '중국 정부-MSD HIV/AIDS 협력 기구(China-MSD HIV/AIDS Partnership)'를 설립하여 HIV/AIDS 질병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HIV 연구에 관한 머크의 역사

한국MSD의 본사 머크는 매년 매출액의 약 20% 내외를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이다. 최근 40여 년간 약 100여 개의 혁신적인 신약과 백신을 개발해온 머크는, 특히 고혈압, 고질혈중 등의 순환기계 질환, 폴다공증, 천식 그리고 HIV/AIDS에 있어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HIV/AIDS를 위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관한 머크의 노력은 2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머크



의 과학자들은 HIV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 단백분해효소(Protease)의 역할을 설정, 곧이어 HIV단백분해효소의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머크는 현재까지도 HIV/AIDS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등의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 중 하나이다.

최근 머크는 기존의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새로운 계열의 HIV/AIDS치료제인 인테그라아제 억제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 2008년 여러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다. 인테그라아제 억제제는 단백분해효소 억제제,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억제제 등을 포함하는 HIV에 대한 머크의 역사 중 일부이며, 머크는 앞으로도 전세계 HIV/AIDS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4